

금융권 문화 뚫은 '비주류'... 장기 전략으로 '주류 금융' 이끈다

CEO 리서치 **빈대인** BNK금융지주 회장

지난해 5월 BNK금융지주 회장으로 취임한 빈대인 회장(64)은 인내심을 갖고 미래에 투자하는 인물로 꼽힌다. 비주류에서 주류로 올라선 입지전적 인물이다. 조용하지만 자신의 능력을 입증하며 BNK금융 회장 자리에 오른 만큼 빈 회장은 단기 성과에 매달리지 않는다. 그 대신 그룹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중장기 목표를 제시하고 차분하게 금융그룹을 이끌고 있다.

◆ 빈대인 회장이 걸어온 길

1960년생인 빈대인 회장의 고향은 경남 남해다. 어린 시절 가족과 함께 부산으로 거점을 옮긴 그는 1979년 부산 원예고등학교를 졸업했다. 집안이 넉넉치 않았다. 장학금을 받기 위해 경성대 법학과에 들어갔다. 88년 졸업 이후 1992년에는 경성대학교 대학원에서 법학과 석사과정을 마쳤다.

빈 회장은 본래 고시를 준비했지만, 적성에 맞지 않아 포기하고 1988년 2월 졸업과 함께 부산은행에 입행했다. 이후 2008년 경영혁신부 부장을 거쳐, 인사 부 부장을 거쳐 2012년에는 부산은행 사상공단 지점장을 지냈다.

이후 능력을 인정받아 2013년에는 북부영업본부장, 2014년에는 경남지역본부 부행장보를 지냈고, 2015년에는 신금융사업본부에서 부행장까지 올랐다. 부산은행 내부에서 비주류에 속하는 경성대 출신으로는 이례적이었다.

그런 그에게 기회가 찾아왔다. 2017년 당시 부산은행장을 겸임하던 성세환 전 BNK금융 회장이 물러나고 김지완 회장이

경성대 법대 졸업 후 부산은행 입행 영업본부장, 은행장 거쳐 회장까지 비주류 출신에도 이례적 승진기도 내부 파벌, 관치 논란서 자유로워

이 취임하면서 은행장 대행으로 부산은행을 이끌었다. 소방수로 등장한 그는 능력을 인정받아 부산은행장 자리까지 올랐다.

이후 3년의 행장 임기를 마치고 퇴장했다. 하지만 그에게 다시 기회가 주어졌다. 연임에 성공한 김지완 회장이 임기를 앞두고 용퇴를 선언했기 때문이다. 빈 회장은 비주류 출신으로 내부 파벌 문제에서 자유로웠다. 또 부산은행 출신으로 관치 논란에서도 벗어나 있었다. 빈대인 전 은행장은 곧장 다그흐스로 부상했다. 가장 유력한 차기 회장으로 꼽혔던 안감찬 당시 부산은행장을 누르고 회장으로 등극했다.

◆ 챗GPT에게 물어보니

빈대인 회장의 경영철학을 챗GPT에게 물어봤다.

챗GPT는 빈 회장의 경영철학이 지역사회와의 동반 성장, ESG에 기반한 경영을 중점으로 하는 지속 가능한 성장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의 관심사에 대해 지배구조 강화, 동반권 전체를 아우르는 지역 상생금융, 금융산업에 맞춘 기후 변화 대응 전략 등을 언급했다.

다음은 챗 GPT의 응답이다.

빈대인 BNK금융그룹 회장의 경영철학은 주로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을 중심으로 한 지속 가능한 금융 실현, 탄소 배출 저감 및 기후 변화 대응, 포용 금융을 통한 지역 동반 성장 및 지역 경제 활성화, 그리고 지배구조 강화를 통한 투명한 경영 실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빈 회장은 ESG 경영을 통해 동반권 지역에서 지속 가능한 금융을 실현하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이를 위해 저탄소 사회로의 전환, 기업 내부 및 자산 포트폴리오의 탄소 배출량 저감, ESG 위원회 구축을 통한 체계적인 지배 구조 및 금융산업의 특성에 맞는 기후 전략 수립에 중점을 두고 있다.

빈 회장은 포용금융을 통해 금융 취약 계층 지원 및 지역 경제와의 동반 성장을 모색한다. 이를 위해 다양한 금융 지원 활동과 지역 기업과의 상생 및 지역 경제



빈대인 BNK금융지주 회장.

/BNK금융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그의 경영철학은 BNK금융그룹이 지역사회와의 상생, 환경 보호 및 지속 가능한 발전을 추구하는 방식으로 실현되고 있다. 이는 그룹이 장기적인 성장을 도모하며, 지역 경제 발전과 사회적 가치 창출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빈 회장의 깊은 의지를 반영하고 있다.

중장기적 성과 위한 내실다지기 집중 ESG경영... 지속가능한 금융 실현 계열사 7곳 중 5곳 세대교체 나서 손해보험회사 인수 방안 검토도

◆ 빈 회장은 어떤 사람

그는 치밀하고 꼼꼼하다. 정직하고 합리적이다. 그를 요약하는 단어는 '조용한 모범생'이다. 선후배들의 평가는 '조용히 제 할 일에 열중하는 정직한 사람'이다. 그래서일까. 일부에선 카리스마 부족과 우유부단을 단점으로 꼽는다.

빈 회장이 부산은행에서 빠른 진급을 거듭할 수 있었던 배경은 치밀하고 꼼꼼한 성격 때문이란 평가다. 실수가 없고, 적을 만들지 않는 그의 원만한 성격이 그가 회장자리까지 오른 배경이다.

또한 빈 회장은 젊은 직원들 사이에서 '특별한 사람'으로도 평가받는다. 뒷배경이 없는 비주류 출신으로 엘리트의식이 강하고, 보수적인 금융권 문화를 이겨내고 금융지주 회장까지 오른 입지전적 인물이기 때문이다.

지금은 다소 열여섯이지만 BNK금융은 부산상고 출신과 동아대 출신, 부산대 출신이 주도권을 두고 경쟁하며 성장을 이끌었다. 지주사 회장과 은행장도 서로 번갈아 배출했다. 그러나 빈 회장

은 원예고를 나와 경성대를 졸업해 어느 파벌에도 속하지 않는다.

빈 회장은 지난해 취임사에서 "평범한 행원으로 시작한 제가 누구든지 최선을 다하면 BNK의 리더가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임직원 여러분에게 보여주었다는 점에 대해서 자긍심도 가져보게 된다"며 "진심이 통하는 곳, 공정한 기회가 열려있는 BNK에서 여러분들의 큰 꿈을 마음껏 펼쳐 보기 바란다"고 밝힌 바 있다.

◆ 그의 성과와 목표

빈 회장은 지난해 3월 취임 직후 인사에서 9명의 지주 임원 중 8명을 교체했고, 7곳의 계열사 중 5곳의 계열사 대표를 새 인물로 채우며 세대교체에 나섰다.

작년 말 인사에서도 JB금융 출신의 외부 인사를 그룹 CFO(최고재무책임자)로 영입하고, 주요 계열사 재무 부서를 CFO 산하로 재배치하며 지주의 장악력 강화에 나섰다. 또한 전체 계열사에 윤리경영부를 설치하는 등 금융사고 재발 방지에도 힘쓰는 모습이다.

빈 회장에게서는 '성과'에 급급한 금융지주 CEO 특유의 조급함을 찾아보기 어렵다. 빈 회장은 임기 초부터 단기간 성과를 위한 외형 성장보다는 장기 성과를 위한 내실 다지기에 집중하고 있다.

빈 회장의 목표는 BNK금융의 숙원인 '종합금융그룹' 달성이다.

빈 회장은 지난해 "종합금융그룹이 되려면 은행과 증권사, 보험사를 보유해야 한다"며 "보험이 빠진 BNK금융은 아직 미완성 상태라고 볼 수 있다"며 "인터넷 전문 손해보험회사나 해외 손해보험회사 인수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목표를 밝혔다.

/안승진 기자 asj1231@metroseoul.co.kr

빈대인 BNK금융지주회장 프로필

- 1960년 경남남해 출생
- 1979년 부산원예고등학교 졸업
- 1988년 경성대학교 법학과 졸업
- 1992년 경성대학교 대학원 법학 석사 학위 취득
- 1988년 부산은행 입행
- 2008년 부산은행 경영혁신부 부장
- 2009년 부산은행 인사부 부장
- 2012년 부산은행 사상공단지점 지점장
- 2013년 부산은행 북부영업본부 부장
- 2014년 부산은행 경남지역본부 부행장보
- 2015년 부산은행 신금융사업본부 부행장
- 2017년 부산은행 은행장
- 2023년 BNK금융지주회장 취임



▲美, 가자지구 암매장 시신 다수 발견에 "이스라엘은 설명해야"
▲엔화, 또 34년 만의 최저 '약세'...日 증시는 2%대 하락 /사진 뉴시스

▲"홍콩서 30일부터 비트코인·이더리움 현물 ETF 거래 개시"
▲한-호주 외교·국방+2 장관회의, 내달 1일 호주서 개최



▲동·서남아 기록적 폭염 '비상'...방글라·태국 등 인명피해 속출 /사진 뉴시스
▲프랑스 남부, 10대 폭력사건 기승에 청소년 심야통금령